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소리 홈스쿨 오케스트라

이경원

하늘소리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운 시간이 1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홈스쿨해야 하는 부담으로 무엇인가 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음악이 시작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 음악의 기독교적 관점이 갖는 실제 의미를 많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놓은 신 소리와 음의 물리적 기초와 음악적 요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늘소리를 통해 누린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가능했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적 환경 이해하기

찬송가를 4부로 연주할 때 작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나는 소리, 여러 악기가 멋진 리듬과 화음을 연주하는 기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리가 담긴 그릇인 공명이 풍부한 환경에서 다양한 음과 화음을 듣고 구별하도록 훈련의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좋은 환경 안에서 교육될 때 아이들은

키가 크듯 음악적 은사도 같이 자랍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의 원리를 무시한 환경에서 너무 큰 마이크나 이어폰으로 증폭된 소리에 익숙해 지면 되려 청각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음악적인 귀는 무뎠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오케스트라 안에서 (부진공자가 나오고 악기제조의 음향 전문기를 하겠다는 학생도 나오고, 마음을 열어 대화하게 된 아이들, 모두가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 평생을 연주할 수 있는 기쁨이 만 들어진 것 등등 이 모두가 건강한 음악 환경에서 만들어진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음악 활동과 시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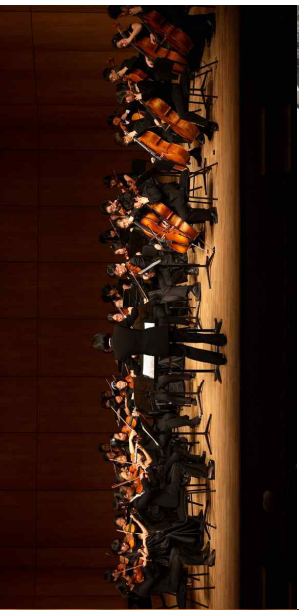
보잘것없는 연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각자 흠어진 곳에서 작은 문화들을 만들어갑니다. 포레의 아이들이 케인에 심취하다 못해 중독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일단 건전한 음악에 마음을 빼앗겨(?) 게임 대신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일단 안심이 되지요. 더 나아가 게임 하고 싶은 마음을 점점 더 생산적인 연습시간에 쏟게 될 때 감사함이 절로 나옵니다. 행여 연습시간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볼 땐 전문성으로 한결을



나아가는구나.. 기대감도 생깁니다. 앙로윈, 교회 찬양시간, 가족 모임 연주, 병원 연주로 확대되고 고급 연주 무대의 기회도 생기며 새로운 세계를 맞춥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품성 보너스

우리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적 즐거움을 알고 풍요롭게 누릴수록 학생들은 대개 자기 시간 사용과 공부의 즐거움 등을 탐으로 얻었습니다. 가족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음악을 누리게 되었다든지, 영양이 있는 음식을 구별하여 먹을 수 있듯 좋은 음악과 소리(연주, 음향)를 구별하게 되었다든지, 첫 악보를 읽는 시간이 예전과 달라져 연주 곡의 폭이 넓어지고, 음악적 표현과 그 만족감으로 아이의 마음 발이 다양한 정서의 꽃으로 채색되었다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대로 노력하고 거두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인내와, 보다 큰 즐거움을 기대하며 지금의 고된 연습 과정을 위해 기꺼이 사서로운 즐거움을 포기하는 자기 절제를 배우고, 앉아 있기가 어려웠던 친구가 오래 앉아 잘 듣게 되었다는 등 셀 수 없는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음악 속으로

무엇 보다 귀한 선물은 아이들이 음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음과 선율, 리듬의 명료함과 음색과 라인(articulation) 등 음악적 표현(expression)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연주 차이를 구별하여 자기 연수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적용이 음악 안에 있는 공간적, 논리적, 물리적, 수학적 개념의 이해로 연결되고, 그 수학적, 물리적인 완전함이 주는 아름다움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선물이요 작품인 것을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연주하면서 누리는 기쁨

아마추어이지만 아이들이 만나는 연주과정은 어른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마음과 귀를 열어서 소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기준이 되는 박자에 맞춰 내 소리와 남의 소리 사이를 오가며 조절하고 그에 알맞은 음가와 균형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작곡가의 의도와 그가 속한 시대를 묻고 알아야 하고, 음악적 예민함(감수성)을 가지게 되면 감동이 생기고 그 감동을 진

달하고 싶어집니다. 청중은 준비된 연주자의 요리를 맛보고 같은 마음으로 감동하겠지요. 한 마음으로 연주된 음악과 하나가 되는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삶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화합의 속성이지요.

6년 전 미국 텍사스에서 한 가족 다섯 식구(John, Susan, Ruth, Grace, Jonathan Willing)가 왔었습니다. 세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늘 대화하며 음악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지를 준비해온 가족이었습니다. 무척 다정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생소한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일부를 드러 하나님께서 오병이므로 많은 아이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헌신했습니다. 악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나누어 줄 때마다 심기가 꽃에서는 썩이 재웠고 지금의 6살의 무성한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욕심도 내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오케스트라가 잘 정착되고 잘 관리되는 것을 보고 3년이 지나 사랑을 완수했다고 여겨졌을 때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아이의 마음도 잃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악의 원리를 잘 이해한 건강한 리더십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하늘소리가 만들어진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율령 가족의 비전과 건강한 신앙의 균형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헌신 위에 건강한 음악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에 눈뜨고 예술의 완전함에 다가



이경원 한양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음악 작곡 석사 및 박사(MMA)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및 대학원, 단국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필리핀에서 Sing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챔버 코치를 거쳐 현재 하늘소리 홀스쿨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1독교세개관으로 본 음악(영제: Sound Swordsing)』 (DCTY)이 있다.

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완전함과 아름다움, 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음악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요 감격입니다.

연주회 소개

6월 2일과 7일 각각 7시 30분에 두 번의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일 연주(전석 초대)는 제 1회 용인 여성회관 대극장에서 하는 정기 발표회로 어린 주니어 단원들과 새로 조직된 앙상블 팀, 시니어 프로그래밍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니어 오케스트라는 Fantasia on Greensleeves, 플링크, 플랭크, 코렐리의 가보트 등을 연주합니다. 반면 7일 연주(인터파크 티켓문의)는 성남 아트 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환우를 돕는 자선 연주회로 앙상블팀과 시니어 오케스트라만 연주합니다. 앙상블 팀은 바하의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3번 전 악장, 보케리니 첼로 콘체르토 Bb 장조 3악장,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전 악장 등 귀에 익은 작품들을 연주합니다. 시니어 팀은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2번 인터메조, 하이든의 교향곡 89번 알레그레토, 비발디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콘체르토 8번 3악장, 록비트의 Red Rhythmicco 등 재미있는 곡으로 꾸몄습니다. www.khomeschool.com 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오케스트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6월 2일 연주는 전석 초대이며, 6월 7일 입장권은 10,000원입니다. 입장권 수익은 환우를 위해 쓰입니다. 구입문의는 성남 아트센터 인터파크(1588-1555 / www.interpark.com)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를 맛보는 모범적 우리 찬송

글 김명범 울산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교회음악이카데미 대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성경대학은 스테이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입학하던 1963년 봄, 연세대 강의실에서 강의 첫 시간에 들은 박태준(朴泰俊, 1900-1986)박사의 말이 아직도 인상에 남는다. 당시 그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종교음악과 과장으로 계셨는데, 찬양대 지리는 마음껏 뽐내는 연주무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람을 위한 자리로 지휘도 그렇게 겸손히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찬송은 수영하기 전의 준비운동 같이 실교를 장식하거나 기분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흔히 사용하는 “찬송하면서 이 앞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라는 말을 금하였다. 찬송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감각적인 예배이지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생 남대문교회 상가대 지휘자로 봉사하신 그는 교회에서 상가대지휘자는 음악목사(music minister)나 음악교역자(music director)에 지나나 장로의 직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 극구 사양하였다. 당시 자신이 목사 음악교역자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 교회 음악인들의 존경을 받아 왔다.

표파적인 재미보다 은혜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작곡정신이며 교회음악철학이다. 그래서 이 찬송은 점음표가 없고, 시분음표() 중심의 음절식(音節式, syllabic style)이다. 가장 모범적인 찬송으로 일컫는 거룩 거룩 거룩(8장), 전능왕 오셔서(10장)처럼 무계가 있다.

또한 이 찬송은 7음계(音階)중 ‘파(♭)와 시(♯)가 빠진’ 도레미 솔 라 다섯 음만으로 작곡되었고, 등음(同音진행)이 많으며, 우리 고유의 장단이 스며있다. 우리 민족 장사가 깃든 한국적인 찬송을 만들려는 의도인 것이다. 국제 예배 컨퍼런스에 종종 참석하신 그는 한국적 찬송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독일교인들은 독일찬송을 부르고, 프랑스교인들은 프랑스찬송을 부르며, 아프리카교인들도 아프리카찬송을 부르는 데 왜 우리 한국교인들이 미국찬송을 부르는가 말이다.

이 찬송의 작사 작곡 년대를 보면 1967년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개관찬송가를 편찬한 해이다. 부를 받아 나신 이 몸(323장)을 지은 이효은(李浩勳, 1911-1989)목사는 평남 강동 태생으로 김리교 대전신학 교회원(목원대학) 교장을 역임한 분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는 말씀을 주제로 한 찬송이 여러 편 있지만(421장, 431장, 551장, 554장 등) 이 찬송이 그 중 최고다. 이처럼 은혜로운 시와 우리 열이 담긴 멜로디가 유리나라 교인들이 애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의 “맛보니”가 가장 마음에 든다. 원래 시엔 “영생을 누리며”도 “영생을 맛보며”로 쓰였다. 하늘나라를 미리 끌어당겨 맛보는 삶. 그것이 영생을 누리

* 지난 호에서 ‘찬송가 개역개정 31장’은 편집자 과실이며 ‘찬송가 31장’이 바른 표기입니다. 사과드립니다.